

무라다기계, 새로운 MVS의 보급 나서

그 동안 MJS(Murata Jet Spinner)를 개발하였으나 아직도 널리 그 성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무라다 기계(村田機械)는 새로 개발한 고속공기정방기(高速空氣精紡 Murata Vortex Spinner : MVS)를 널리 알려 사용하게끔 MVS 시험기로 견본 실을 뽑아, 이 실을 양말, 타월, 파자마 업계의 희망하는 공장에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다.

“MJS”는 결속방사기의 하나로서 면과 같은 단섬유가 나란히 잘 정리된 다발을 다른 섬유로 묶어서 만들어지는 결속방사(結束紡絲)이며, “MVS”는 나란히 잘 정리된 섬유의 다발을 묶어주는 섬유는 한 끝이 섬유다발 속에 묻혀 있어 섬유다발을 잘 묶어 준다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었고, “MVS” 결속 방사는 실을 만드는 모든 섬유가 한쪽 끝은 실의 심에 묻혀 심을 이루고 모든 섬유가 나선(螺旋) 모양으로 결속한 모양의 실이 된다.

“MJS” 실이나 “MVS” 실도 모두 마찰을 받았을 때 섬유가 뭉쳐 생기는 작은 마디인 펠링(Pilling)이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서도 “MJS” 실은 흡수속건성이 좋으나, 순면사는 뽑기가 쉽지 않아 8수 단사나 이보다도 굵은 태번수를 뽑기가 좋다. “MVS” 실은 15수 단사에서 60수 단사까지 중번수나 세번수를 뽑는데 적합하다고 한다.

“MVS”기(機)는 미국에 225대, 오스트레일리아에 27대, 인도네시아에 28대, 이탈리아에 11대, 태국에 3대, 인도, 한국, 홍콩에 각 한 대씩 있으며, 이 기계·메이커의 나라인 일본에는 10대가 있어 모두 300여대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일본에 있는 10대중 7대는 무라다 기계가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MVS”기는 아직 시험단계에 있으며, 그 중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인도의 4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아

디다스” 트레이너(trainer)나 미국 월마트의 트레이너는 모두 “MJS”나 “MVS”의 결속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